

다양한 건축공법으로 '둥지' 짓는 새들의 이야기



큰오색딱따구리가 만든 둥우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새는 건축가다

차이진원 지음, 박소정 옮김

대자연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는 누구일까? 저마다 관점에 따라 다른 답을 할 수 있다.

타이완 출신으로 국립 타이완대학교 산림연구소에서 야생동물 생태학을 공부했던 차이진원은 '새'라고 답한다. 새는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저마다 신비로운 '집'을 짓기 때문이다.

차이진원이 이번에 펴낸 '새는 건축가'는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지적이고 우아한 건축 이야기"다. 새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특유의 맛깔스러운 글과 섬세한 그림으로 엮였다. 생태화가이기도 한 저자의 손끝에서 비롯된 새들의 생태는 경이로움 그 자체다.

국립 타이완대 산림환경 및 자원학과 위안사오웨이 교수는 추천사에서 "다른 화가의 작품과는 다르게 진원의 그림에는 과학적 전문성이 담겨 있고, 자연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력이 돋보이며 예술적인



내공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9000여 종에 이른다. 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둥지를 만들는데, 자연의 변화를 기록하는 '대자연의 일기장'과도 같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깨어나는 계절인 봄은 새들에게 번식철이기도 하다.

둥지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인 셈이다. 알을 한데 모아주는 역할은 물론 부화를 돕기도 한다. 갓 깨어난 새끼들을 다른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새 둥우리하면 일반적으로 나뭇가지로 만든 접시 모양을 떠올린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둥우리는 다양하다. 새들의 둥지 짓기를 설명하기 위해 재봉사, 편직 장인, 미장이, 동굴 파기 전문가, 집꾼 등과 같은 직업의 특성이 동원된다.

그렇다면 새들의 건축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연유할까. 저자는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 일테면 공룡 둥우리과 알 화석을 통해 조류의 집짓기 과정을 탐색한다.

"조류의 둥우리 건축 본능은 그들의 조상인 공룡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룡의 번식 계통은 파충류와 조류의 딱 중간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룡은 한 번에 알을 두 개 낳고(파충류는 한 번에 모 든 알을 낳고, 조류는 한 번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 알은 구멍이에 알을 수직으로 세워 배열했는데, 이 구멍이가 바로 둥우리의 원시 형태다."

책에는 특이한 스타일의 둥지가 등장한다. 인간의 주거지와 다른 주택, 아파트 등이 들어져 있는 것과 같다.

재봉새는 '바느질에 능한 재봉사'다. 바늘과 실을 이용한 재봉술로 집을 만든다. 암컷 재봉새는 짝짓

기를 한 후 둥우리 짓는 작업을 도맡는다.

"구부러진 뽕쪽한 부리를 바늘 삼아 잎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는다. 구해은 식물섬유와 거미줄을 구멍 사이로 통과시킨 뒤, 실 끝부분을 공 모양으로 처리한다. 구멍 하나하나마다 심혈을 기울여 잎을 주머니 모양으로 꿰매고 그 안에 가느다란 풀과 솜털을 채워 넣는다."

제비는 '콘크리트'를 잘 활용하는 미장이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집을 짓는데 건설 현장이나 논밭 등지에서 진흙을 구한다. 전체 구조는 진흙으로 구성되며 사이사이마다 "가는 풀대와 풀잎이 침과 섞여" 있다.

딱따구리와 오색조, 물총새는 '동굴 파기 전문가'다. 구멍에 둥우리를 짓는 조류를 '동소조'(洞巢鳥)라고 한다. 구멍 둥지는 비바람을 막는데 최적인데다 포식자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다. 저자는 "동소조는 수직면에 위치한 구멍을 붙잡기 수월하도록 강하고 튼튼한 발톱이 있어야 한다"며 "나무 줄기 위를 잘 걷는 딱따구리나 동고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이밖에 책에는 조류의 특이한 행동양식과 이색적인 '건축 방식'이 소개돼 있다. 새와 둥우리, 알과 둥우리, 부화과 둥우리 등 조류의 일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간인 둥우리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책을 읽다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새 둥우리는 대자연의 일기장이다. 따라서 새 둥우리를 이해하면서 인류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셈이다."

<현대지성·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봉새가 부리로 잎을 꿰매 둥우리를 만드는 모습



제비가 진흙을 몰아다 둥우리를 트는 모습

폭죽무덤

김엄지 지음

이미지에 불들린 한 인물이 있다. 그에게는 얼마 전 헤어져 여자인구가 있다. 또한 남자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를 돌보는 동생이 있다. 그러나 남자는 그 무엇보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갈급해하지 않는 남자의 일상에는 삶의 의지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다.

월간 '현대문학'의 '현대문학 핀 시리즈' 스물세 번째 소설선인 김엄지의 '폭죽무덤'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현대문학' 지면에 선보인 것을 다시 단행본 발간으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다.

당대 한국 문학의 현대적이면서도 점예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답게 소설은 이색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지난 2010년 유례없는 소설가의 탄생이라는 찬사와 함께 등단한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권태로운 삶 속에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소설은 작가의 전작 '주말, 출근, 산책: 어둠과 비'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인물의 회해하고 무감한 인간관계를 건조한 문체로 그린다.

오늘날 파편화된 인간관계의 다양한 면들이 축약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욕망이 폭발한 뒤 찾아오는 허무함, 그리고 생각의 편린들을 작가는 예리한 시선으로 그러나 담담하게 풀어낸다.

김대산은 해설에서 "김엄지의 '폭죽무덤'으로부터 떠오르는 물음은 희비극적 인간 존재들이 아직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가능성을 향한 '생각의 욕망' 혹은 '욕망의 생각'에 대한 물음이다"고 평한다.

<현대문학·1만12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시대의 아벨

고정희 지음

올해는 고정희 시인이 지리산의 품속에 안긴지 29년이 되는 해다. 1948년 해남에서 출생한 시인은 해남과 광주에서 잡지사 기자, 사회단체 간사, 문학동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27세에 한국신학대학(지금의 한신대학교)에 입학해 그해 박남수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목요시 동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등을 지냈으며 삶과 문학을 아우르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다 1991년 6월 9일 평소 자주 올랐던 지리산을 찾았다가 실족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최근에 '문학과지성 시인선' 30번째로 '이 시대의 아벨'이 재판돼 나왔다. 생전의 시인은 첫 시집 '누가 홀로 술들을 밟고 있는가' 이후 '실락원기행', '초혼제', '이 시대의 아벨', '광주의 눈물비' 등을 펴냈다. 사후 유고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가 출간됐다.

"오 아벨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안락한 처마 밑에서/ 함께 살기 원하던 우리들의 아벨/ 너희 따뜻한 나뭇가에서/ 함께 몸을 비비던 아벨은 어디로 갔는가"('이 시대의 아벨' 중에서)

1983년의 '이 시대의 아벨'은 40여 년이 흐른 오늘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형 카인은 농부였다. 오늘의 관점에서 아벨과 카인은 단순한 형제 사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주연 평론가는 "시인은 이 작품에서 아벨의 실종을 애달파 하며, 이제 아벨을 우리 옆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슬픔에 동참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권유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아벨은 누구인가? 그는 안락한 처마 밑에서 함께 살기 원하던 자였으며, 풍성한 산해전지 잔치상에서 주린 배 움켜쥐던 자였다"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문화예술인 100명 지음

영화 '기생충', '겨울왕국 2' '어벤져스: 엔드게임', '조커' 등은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 성공했고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했다.

영화평론가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은 이러한 영화들 중 22편을 뽑아 그에 관한 평론을 엮은 책을 출간했다. '2020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가 바로 그것.

제작에는 문화예술인 100명이 참여했으며 이번이 13번째 출간이다. '김군(강상우)', '별새(김보라)', '윤희에게(임대형)', '블랙머니(정지영)', '생일(이종연)', '결혼 이야기(노아 바움백)', '미안해요, 리카(켄 로치)', '그린 북(피터 패럴리)', '두 교황(페르난도 메이렐레스)' 등 한국영화 11편과 외국영화 11편, 총 22편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됐다.

이 중 최우수 영화로 한국의 '기생충'과, 미국의 '아이리시맨'이 선정됐으며 '오늘의 영화 좌담' 코너에서는 '기생충'을 다뤘다.

책 말미에는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도 실렸다. 봉 감독은 인터뷰에서 "기생충은 '실국영차' 후반 작업 때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고 '육자' 프리프로덕션 전에 이미 스토리 라인을 써서 다른 제작사랑 이야기했다"며 "영화 준비 기간들이 다, 디폴트처럼 오버랩 돼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작업한다"고 전했다.

또 "최대한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현재 우리 영화산업이 "조금 더 미래적으로 나아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발간된 '2020 오늘의 시'에는 안희연 시인의 '스페이스', '2020 오늘의 소설'에는 조해진 소설가의 '완벽한 생애'가 선정됐다. <작가·각 1만5000원>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3월호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광주, 컬렉션을 브랜딩하라

– 매력적 컬렉션으로 브랜딩에 성공한 미술관들
–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의 역사와 현재
– 남도미술관, 박물관들의 대표 컬렉션

문화 기획

5·18 40주년의 의미 되새긴다
2020 광주의 문화성전

클릭, 문화현장⑤-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 & 대통령 기록관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키포인트

눈호강, 마인 강변 박물관 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③

서울은 지금 즐거움과 안전을 디자인하는 중

예향 초대석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최태지

"단원들 창작에너지 가득, 지원 기대"

문량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송 해남이 낳은 작가들과 작품들 당골순례문학관

화제의 아카데미

지역성 넘고픈 오스카 '기생충' 원했다

유현준의 도시건축⑦ 의자는 건축의 '줄기세포'

전시리뷰 하루.K의 <와신짬뽕>전

새봄 기획

새봄엔 역시 봄꽃 전문가가 추천해 드립니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연예인 죽음으로 내모는 사생활 사냥꾼들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플로리다 스포링 캠프 현장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개냥①

까칠한 소녀 얼굴에 웃음 준 반려견 '사랑이'

바우하우스 낭도 한 바퀴-나주

역사 타고 문화 속으로 나주 시간여행

- 생생한 천년고도의 숨결
- 특 쓰는 흥어, 달콤 멜론